1. 공포게임 – 우산 너머에 (대충 지은 이름)

*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사람들은 비를 최대한 안맞기 위해서 우산을 앞으로 기울이고 걸어간다. 이 때문에 앞에 오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부딪히는 일이 허다한데 이를 이용해서 귀신 갑툭튀 혹은 스릴러 장르로 범죄자 갑툭튀 하는 단순 공포게임
* 어떤 형식으로 하게 되나면 같은 장소를 매일 지나가는데 이제 매일매일 무언가 변화해가는거 ex) 플레임이 했던 게임 중에 자전거 타고 터널 지나가던? 게임 그런 느낌(막 차량 사고 귀신 따라오고 결국 엔딩은 주인공이 차 사고 낸 인간이었던거)
* 하는 행동에 따라 엔딩 갈리게 하기 -> 피해자랑 부딪혔었지만 후에 쓰러졌는데 도와주지 않는다 = 피해자는 죽고 주인공이 범죄자의 표적이 된다 or 피해자랑 부딪힌 후 피해자가 나중에 쓰러진걸 알아채고 도와준다 = 주인공도 사는 결말